

# 필사본 『朝鮮地誌資料』 충청북도편 지명 자료의 시론적 분석\*

김 순 배\*\*

## A Preliminary Study on the Toponymic Data of *Joseon Jiji Jaryo : Chungcheongbuk-do\**

Kim, Sun-Bae\*\*

**요약:**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의 학술적 가치는 한글로 표기된 고유 지명과 그와 대응되는 한자 지명이 전국적인 수준으로 다량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이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 지명 변천의 언어학적인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학적인 명명 유연성과 당시 행정 구역 등을 추론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조선지리지자료』가 가지는 지명학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 문헌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제고하기 위해 기초적이고 시론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충청북도편을 중심으로 서지 사항과 내용 구성을 재검토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편찬 시기에 대한 지역적 편차 가능성과 내용 구성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 문헌에 수록된 지명 자료의 지명학적 가치를 촌락 지명의 표기 변화와 차자 표기 경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조선지리지자료』 충청북도편, 한글 지명, 한자 지명, 차자 표기법

**Abstract:** The academic values of *Joseon jiji jaryo* (Geographical Documents of Joseon) are that native Korean toponyms corresponding with toponyms in Sino-Korean characters (hanzi 漢字) are abundantly recorded nationwide. Through analysing these documents, it is able to examine the linguistic features of toponymic changes while reasoning about geographical named source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s well as obtaining primary data. This article aims to preliminarily analyze these documents for encouraging academic studies which haven't been investigated sufficiently since they was introduced into the academic world. Noticing the toponymic values of these documents, I reexamined the bibliography and composing contents centering around the volume of Chungcheongbuk-do province in these documents. Consequently, I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ifferences of compilation times and mistakes in the contents of these documents. In addition to that, I proposed the toponymic values, referring to the transcription changes of village toponyms and the tendencies of loan transcription.

**Key Words:** *Joseon jiji jaryo : Chungcheongbuk-do*, native Korean toponyms, toponyms in Sino-Korean characters, loan transcription

### 1. 서론

우리나라 지명이 지니는 표기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순우리말의 한글 지명과 이를 차자 표기한 한자 지명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1446년(조선 세종 28)에 훈민정음(이하 한글)이라는 고유한 표기 문자가 창제된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국한문 혼용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도 한글로 지명을 표기하는 관행은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자 지명은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수용한 삼국 시대 이래 지식인층이 생산한 각종 문헌과 공사(公私) 문서, 고지도 등에 한문 혹은 이두식으로

활발하게 수록되어 왔다.

특히 지명 변천의 언어학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지리학적인 명명 유연성을 추론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한자 지명과 한글 지명의 대응 표기 사례는 15세기 중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한글 주석과 18세기의 『이재난고(頤齋亂藁)』 같은 개인 문집류 및 일기류 등에서 제한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한글 편지인 언간(諺簡) 등에는 대응되는 한자 지명이 누락된 채 한글 지명만이 수록되어 있다(이건식, 2009; 이래호, 2012). 조선 시대 이전 우리나라 지명 표기 자료가 가지고 있던 이 같은 제약들이 바로 필사본 『조선지리지』

\* 이 논문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2012)에서 수행한 “학술연구보고서 2: 조선지리지자료 충청북도편”의 필자가 작성한 해제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gogeo@hanmail.net)

자료』가 지닌 지명학적 가치를 주목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즉 이 문헌이 지닌 가장 큰 학술적 가치는 20세기 초반의 언문(諺文), 즉 한글로 표기된 고유 지명이 그와 대응되는 한자 지명과 함께 다량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언문’ 항목에 기록된 한글 지명은 100여년 전 당시 현지인이 부르던 음성 상태의 고유 지명을 당대의 한글 표기법으로 수록해 놓은 것이다.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는 임용기(1995)에 의해 그 학술적 가치가 학계에 소개된 이후,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원도 화천군 및 속초시, 울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등에서 서지 사항과 발간 년도, 내용 구성 등을 분석하였고, 이 책에 수록된 지명 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리지 구축과 언어, 문화, 역사, 지리를 복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한정규 편, 2002; 박채은 편, 2007; 신종원 편, 2007; 신종원 등, 2010).

이 문헌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심보경(2010)은 강원도편 지명 자료를 기초로 어두함용병서 표기, 분철·중철·연철 표기, 모음간 유기음 표기 등의 표기법을 연구하였고, 이진식(2009)은 경기도 광주군 지명 표기를 한글 표기 지명, 한자와 한글 대역 표기 지명, 한자 표기 지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역사학계에서는 경기도편에 수록된 지명 자료를 바탕으로 보와 제언 등의 수리시설 종류와 입지 분포, 수축의 배경과 관리 운영을 분석하기도 하였다(정수환, 2009).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내용들과 이 문헌이 지닌 가장 큰 학술적 가치로 평가되는 한글 지명과 한자 지명의 대응 표기에 주목하여 본 논문의 주요 논지를 세 가지, 즉 서지 사항과 내용 구

성의 재검토, 그리고 지명 자료의 차자 표기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정된 본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의 일반적인 서지 사항과 내용 구성을 전체 54책 중 4책(8~11책)을 구성하는 충청북도편을 대상으로 재검토하여 그 편찬 시기와 내용 구성의 지역적 편차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명 자료의 지명학적 가치를 촌락 지명의 표기 변화와 차자 표기 경향을 중심으로 시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2.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의 서지 사항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도서번호 古2703)에만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으로서 편찬 주체와 시기, 장소, 동기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54책 분량의 방대한 지명 자료집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대정 8)에 조선총독부가 활자본으로 간행한 동일한 제목의 책과 구별하기 위해 ‘필사본(筆寫本)’이라는 출판 정보를 부기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신종원 편, 2007, 14). 1910년대 초반 전국의 지명 자료를 기초 조사하여 수집한 후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정서한 자료로 54책의 곳곳에 붉은 색 선으로 수정한 흔적이 보이고 있어 활자로 인쇄하기 전 최종 원고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본의 판식은 닥종이로 만든 ‘갑용지(甲用紙)’와 ‘을용지(乙用紙)’의 두 양식으로 되어 있다. 갑용지는 12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측 첫 행에도(道), 군(郡), 면(面)의 명칭을 기록하였다. 도의 이름은 세로 방향으로 ‘忠淸北道’ 등과 같이 일률적으로 스탬프를 이용해 찍었고, 그 외 군과 면의

표 1. 『조선지리지자료』 충북편의 분류 사항

분류 사항	정 보
표제 사항	朝鮮地誌資料. 8-11 : 忠淸北道
출판 사항	筆寫本
발행 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 사항	4冊 : 四周雙邊 半郭 20.9 × 16.5 cm, 有界, 12行字數不定, 無魚尾 ; 28.2 × 20.1cm
분류 기호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 2703

이름 등은 모두 필사하였다. 두 번째 행은 역시 세로 방향으로 ‘종별(種別)’, ‘지명(地名)’, ‘언문(諺文)’, ‘비고(備考)’라는 네 항목으로 구분하여 좌측 공란들에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을용지는 갑용지에 적은 조사 내용이 부족할 경우 이어서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든 보충란의 성격을 띤 용지로서 갑용지에 있는 도·군·면명과 종별, 지명, 언문, 비고를 기록하는 두 개의 난이 없이 12행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양식은 『조선지리지』를 편찬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양식인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조선지리지』 충청북도편(이하 충북편)의 서지 사항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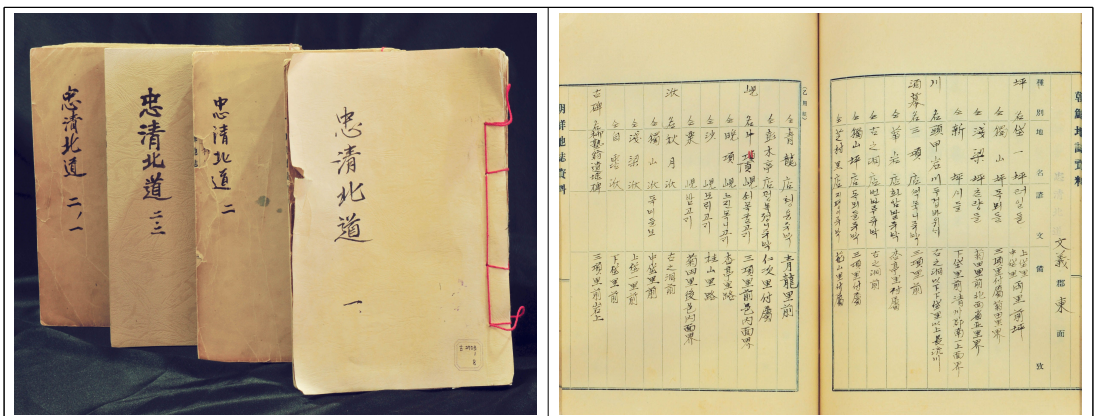
책의 제목은 판심의 판심제(版心題)에 세로로 ‘朝鮮地誌資料’라고 되어 있을 뿐 겉표지에는 서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임용기, 1995, 143-146). 책의 겉표지는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각 책의 제첨란(題簽欄)에는 책의 서명 대신 세로로 ‘京畿道 一/一’ 또는 ‘忠淸北道 二/一’, ‘忠淸北道 二·二’ 같이 도명과 함께 일본어의 소유격을 뜻하는 가타가나(カタカナ) ‘/’나 점(·)을 사용해 책의 편명과 그 순서만을 표시하였다(그림 1).

54책으로 구성된 『조선지리지』는 경기도(7책: 1-7), 충청북도(4책: 8-11), 충청남도(4책: 12-15), 전라북도(1책: 16), 전라남도(7책: 17-23책), 경상

북도(8책: 24-31), 경상남도(7책: 32-38), 강원도(4책: 39-42), 황해도(4책: 43-46), 평안남도(4책: 47-50책), 평안북도(4책: 51-54) 등 도별로 분책되어 있다. 1910년대 초반 당시 전국의 행정구역이 13도제로 편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편이 누락되어 있고, 전라북도 편 또한 1책(전라북도 二/一)의 함열군, 김제군, 익산군, 장수군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자료가 후대에 분실된 낙질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의 내용 중 ‘종별’은 조사 대상의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산(山, 峰), 골짜기(谷), 하천(江, 川, 溪, 澗), 마을(洞, 里, 村), 나루(渡津), 개(浦口), 들(野, 坪), 驛, 市場, 酒幕(店), 못(池), 방죽(堤堰, 狀), 고개(嶺, 峴, 峙), 토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성보(城堡), 관방(關防), 학교(書院, 鄉校), 절(寺刹), 고적명소(古蹟名所), 옛 비(古碑)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조사 항목의 수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지역별 조사 대상의 유무와 수집 정도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조선지리지』의 편찬 시기에 대한 분석에 있어, 이 책의 조사 내용 중에 1896년(조선 고종 21)에 시행된 13도제의 행정구역 명칭이 기재된 점과 1900년에 개통된 경인선 철도역의 명칭(부평역, 소사역 등)이 등장하고 있는 점, 1910년 9월에 칙령 343호 ‘조선주차헌병조령(朝鮮駐紮憲兵條令)’



주: 왼쪽 사진은 『조선지리지』 충북편 4책(8-11책), 즉 “忠淸北道 一”, “忠淸北道 二”, “忠淸北道 二/一”, “忠淸北道 二·二”의 외형을 보여주며, 오른쪽 사진은 “忠淸北道 二”책에 기록된 문의군 동면의 내용이다. 왼쪽 면의 ‘지명(地名)’ 항목에 붉은색으로 글자를 수정한 흔적이 보이며, ‘언문(諺文)’ 항목에는 당시 불리던 한글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2012).

그림 1. 『조선지리지』 충북편과 그 내용

등에 의해 시행 및 설치된 헌병경찰제도 하의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명칭이 경기도 영평군 일동면 기산리 등에 등재된 점, 1911년 봄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서부리의 사직단(社稷壇) 제사의 폐지 사실이 비고란에 기재된 점, 그리고 1912년 1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기재된 행정구역 명칭이 『조선지리지자료』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1911년 봄부터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이 간행되기 전인 1911년 12월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임용기, 1995, 156-157; 신종원 등, 2010, 5-6).

그러나 충북편의 일부 자료에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 이후, 구체적으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결과로 보이는 면 지명들이 발견되고 있다. 즉 충북편 4책에는 청풍군과 영춘군이 빠져 있고, 대신 제천군과 단양군에 각각 이들 군의 소속 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3책의 괴산군 ‘괴산면’과 4책의 음성군 ‘음성면’이란 지명들은 1917년 지정면제(指定面制)의 실시로 기존의 군내면, 현내면, 읍내면 등과 같이 읍치소가 위치한 곳의 면 지명을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괴산, 음성 등)를 활용하여 개정했던 면 지명 변경 결과를 담고 있다.<sup>1)</sup>

마지막으로 면의 통폐합 결과 나타난 합성 지명, 즉 기존 면 지명에서 1자씩을 따서 만든 면 지명들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선행 연구들이 『조선지리지자료』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 간행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의 음성군 자료에 ‘금목면’과 ‘법왕면’으로 기록된 면들이 『조선지리지자료』에는 1914년 통폐합 이후에나 등장하는 ‘금왕면’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방식으로 ‘생동면’과 ‘무극면’은 『조선지리지자료』에서 이 두 면이 통폐합된 1914년 이후의 ‘생극면’으로 기록되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조선지리지자료』가 1911년에 편찬되었다고 추정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은 일정 부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14년과 1917년의 지명 개편 결과를 담고 있는 충북편

의 기록으로 인해 이 문헌이 시기를 달리하여 지역별로 편찬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1911년에 편찬된 후 추후의 지명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재편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1910년 12월 지수(地收) 제401호로 지시된 ‘市街地の 町名에 관한 件’에는 조선총독부가 각도 장관에게 공문조복(公文照覆)의 형식을 취하여 “토지 조사의 진행에 맞추어 토지조사관리 및 부윤(府尹)과 협의하여 일본명, 조선명 어느 쪽이든 보통 사용되는 이름을 따서 지구를 정리하고 그 명칭 지구의 결정은 귀관이 고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고시 자료와 『조선지리지자료』 ‘충청북도 二ノ一’의 청주군 청주면에 기록된 30개의 일본식 주소명(本町一丁目, 旭町三丁目 등)을 고려할 때 이 책의 편찬 상한 시기를 1910년 12월 이후로도 상정할 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의 편찬 동기에 대해서는 1938년(소화 13)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간행한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를 통해 그 단서를 포착한 연구가 있다(임용기, 1995, 150-158).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1938, 170)에는 1910년(명치 44) 당시 우좌미(宇佐美) 내무장관이 각도 장관에게 의뢰하여 조선 지명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엮어 『조선지명사서(朝鮮地名辭書)』라는 이름으로 1930년(소화 5)에 인쇄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조선지명사서』의 조사 항목이 『조선지리지자료』와 거의 일치하고, 자료의 분량(원고본 28책 10,378매)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선지리지자료』가 『조선지명사서』의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집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선지리지자료』는 1911년의 약 일년 간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의해 각 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지리 정보와 지명 자료를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일사분란하게 수집한 자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편의 경우 1914년에 단행된 전국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 결과가 반영되어 있어 지역별로 수집 년도가 일정한 편차를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시일 내에 전국에서 진행된 사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책에는 일정한 조사 항목의 내용과

기재 방식이 나타나며, 동시에 조사자의 수집 방식과 성실도에 따라 지역별 수집된 지명의 양과 질이 고르지 않은 점과 자료의 오류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글 지명을 기록한 ‘언문’ 항목의 경우 군별 혹은 면별로 수록 지명이 심한 차등을 보이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러나 1914년(대정 3) 4월 1일에 실시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과 그 결과 발생한 고유 지명의 변질과 소멸,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획일적인 ‘행정리(行政里)’ 이전의 고유한 형태의 소지명들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3. 『조선지지자료』 충북편의 내용 구성

조선 후기 일련의 행정구역 개편 결과 ‘忠淸北道’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1895년(고종 32)의 23부제에 이어 이듬해인 1896년의 13도제 실시로 ‘충청북도’라는 명칭이 등장했으며 행정단위를 나타내는 후부 지명소가 ‘~군(郡)’으로 통일되었다. 13도제의 실시로 충청북도는 18군(단양군, 영춘군, 제천군, 청풍군, 충주군, 괴산군, 연풍군, 청안군, 음성군, 진천군, 청주군, 문의군, 보은군, 회인군, 옥천군, 청산군, 영동군, 황간군)으로 편제되어 충주군에 도청이 위치하였다. 『조선지지자료』 충북편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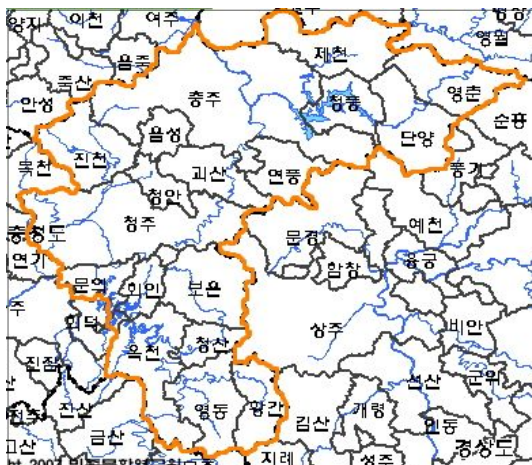
년은 행정구역의 큰 변동 없이 1896년의 행정구역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이후 1908년 6월 5일 충주군에 있던 충청북도청이 청주군으로 이전되었고(18군 199면), 1914년에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10군[단양군(+영춘군), 제천군(+청풍군), 충주군, 괴산군(+연풍군+청안군), 음성군, 진천군, 청주군(+문의군), 보은군(+회인군), 옥천군(+청산군), 영동군(+황간군)]과 114면으로 통폐합되었다. 현재 충청북도는 청주, 충주, 제천의 시 승격과 1949년 청주시 분리로 인한 청원군 신설,<sup>2)</sup> 2003년 증평군 신설로, 3시(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9군(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충북의 행정구역 변천을 염두에 두고 『조선지지자료』 충북편의 내용 구성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이 책은 4책(8-11)으로 분책되어 총 15개 군, 137개 면의 지명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앞서 제시한 1908년 충북의 관할 군·면이 18군 199면임을 감안할 때 이 책에 수록된 군·면의 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18개 군 중 연풍군, 청풍군, 영춘군이 그 수에서 제외되고, 연풍군 면 자료의 누락과 1908년 이후 발생한 면의 통폐합으로 인한 면수의 감소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sup>3)</sup>

한편 각 군별 수록된 면의 수는 청주군 18개 면, 보은군 13개 면, 청산군 2개 면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군별 호구수, 전결수, 행정구역 면적 등의 큰 편차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별 편차는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인접 군들 사이의 통폐합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순배, 2004, 65-85)

각 책별 내용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1책인 ‘忠淸北道’는 영동, 진천, 단양, 황간 등 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단양군의 남면, 서면, 조산면, 소야면, 북일면 자료는 2책의 연풍군 자료에 중복되어 기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제시된 2책의 목차 중 연풍군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그 자리에 단양군의 상기 5개 면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오류가 발견된다. 또한 4책에는 영춘군 소속의



주: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시스템(<http://www.atlaskorea.org>)의 지도에 행정구역 경계를 굵게 기입한 것임.

그림 2. 충청북도 18군 행정구역도(1911년)

표 2 『조선지리지』 충북편의 분책 사항

구성	군명 (15군)	면명 (137면)
1책 충청북도 一 (4군)	永同	郡内, 郡東, 北一, 北二, 西一, 西二, 南二, 陽内, 陽南一所, 陽南二所, 龍化, 南一 (12면)
	鎭川	南邊, 北邊, 德文, 方洞, 山井, 草坪, 文方, 白洛, 西岩, 杏井, 栢谷, 梨谷, 所番, 萬升, 月村 (15면)
	丹陽	邑内, 東, 南, 西, 造山, 所也, 北一, 北二 (8면)
	黃澗	郡内, 西, 梅谷, 上村, 黃金所 (5면)
2책 충청북도 二 (7군)	報恩	邑内, 山内, 思角, 俗離, 旺來, 馬老, 炭釜, 三升, 西尼, 水汗, 内北, 朱城, 山外 (13면)
	淸安	邑内, 東, 南, 西, 北, 近西 (6면)
	懷仁	邑内, 東, 西, 南, 北, 江外 (6면)
	沃川	郡内, 郡東, 郡南, 郡西一所, 郡西二所, 郡北一所, 郡北二所, 安内, 安南, 伊内, 伊南一所, 伊南二所 (12면)
	文義	邑内, 東, 南, 一道, 二道, 三道, 北 (7면)
	延豊 (丹陽)	南, 西, 造山, 所也, 北一 (5면)
	靑山	西, 北 (2면)
3책 충청북도 二— (3군)	淸州	淸州, 四州, 琅城, 米院, 加德, 南一, 南二, 文義, 龍興, 賢都, 芙蓉, 江西, 江内, 江外, 玉山, 梧倉, 北二, 北一 (18면)
	槐山	槐山, 甘勿, 七星, 文光, 靑川, 沙梨, 沼壽, 佛頂 (8면)
	忠州	忠州, 烝味, 利柳, 周德, 薪尼, 老隱, 仰城, 可金, 金加, 東良, 山尺, 嚴政, 蘇台 (13면)
4책 충청북도 二—二 (3군)	堤川 (淸風)	堤川, 錦城, 淸風, 水山, 德山, 寒水, 水下, 白雲, 鳳陽, 松鶴 (10면)
	陰城	陰城, 蘇伊, 遠南, 孟洞, 大所, 三成, 金旺, 笙極, (甘谷) (9면)
	丹陽 (永春)	佳谷, 魚上川, 永春 (3면)

주1: 단양군 자료가 1책과 2책, 二-2책에 중복되어 있음.

주2: 2책에 연풍군 자료가 누락된 채 그 자리에 1책에 기재된 단양군의 5개 면 자료가 중복되어 수록됨.

주3: 二-2책의 제천군 내에 청풍군 면지명들이 포함되어 있고, 단양군에 영춘군 면 지명들이 수록됨(단양군을 영춘군으로 바꿔야 함). 청풍군과 영춘군은 1914년에 이르러서야 각각 제천군과 단양군에 병합되었음.

주4: 二-1책의 청주군 안에 '문산리(文山里)', '상장리(上長里)', '미천리(米川里)' 등 10개 리가 '문의면'이란 면 지명으로 수록되어 있음.

3개면(가곡, 어상천, 영춘)이 '단양군'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어, 충북편에 수록된 실제 군의 수는 분책 명목상의 17개 군에서 두 개(연풍군, 중복된 단양군)를 제외한 15개 군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충북은 실제 18개 군이 있었으므로, 충북편의 분책 사항을 17개 군에서 18개 군으로 조정하여 청풍군과 영춘군을 독립시키고, 누락된 연풍군 자료를 찾아 보완하며, 2책 연풍군에 포함된 5개의 단양군 면 자료를 1책의 단양군 항목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각 책별 내용 구성이 이 문헌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정보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후 이를 반영한 자료 수정이 필요하다.

2책인 '忠淸北道 二'에는 보은, 청안, 회인, 옥천, 문의, 연풍(단양), 청산 등 7개 군의 지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풍군 자료는 1책의 단양군 5개면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지명 분류에 주의를 요한다.<sup>4)</sup> 3책인 '忠淸北道 二 / 一'은 청주, 괴산, 충주 등 3개 군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청주군에는 ‘문의면’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문의면에는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문의군 읍내면의 일부 동리(문산리, 상장리, 미천리, 품곡리, 두모리 등 10개리)가 청주군으로 편입된 후 ‘문의군’의 이름을 빌어 ‘문의면’이라 지칭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주군 청주면에는 충청북도 중 유일하게 30개의 일본식 주소명(本町一丁目, 旭町三丁目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가 지시한 ‘시가지의 정명에 관한 건’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충북 도청이

소재했던 청주면에는 충북에서 일본인 거류민의 거주가 활발했던 곳으로 1920년 실시한 임시호구조사 결과 청주면의 총인구는 5,288명으로 조선인 3,583명, 일본인 1,612명(30.48%)이 거주하였다(손정목, 1996, 76-77). 같은 시기 충남의 도청 소재지였던 공주군 공주면은 총인구 7,425명, 조선인 5,761명, 일본인 1,526명(20.55%)이 나타나 청주면의 일본인 수와 비율이 공주면 보다 높게 나타났다.

4책인 ‘忠淸北道 二ノ二’에는 제천, 음성, 단양의 3개 군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제천군 자료에는

표 3. 『조선지리지』 충북편 二책 보은군의 조사 항목

면명 (13개면)	조사 항목(종별) (총 지명수 634개)
邑內面 (7개 종별)	山谷名(7), 野坪名(4), 江川溪澗名(2), 面社坊名(1), 洞里村名(13), 市場名(1), 堤堰湫名(3) (총 31개 지명)
山內面 (9개)	산곡명(1), 야평명(1), 강천계간명(1), 面社坊面(名)(1), 동리촌명(26), 驛名(1), 酒幕名(3), 제언보명(1), 巖峙岬名(1) (총 36개)
思角面 (9개)	산곡명(1), 야평명(4), 강천계간명(1), 면사방명(1), 동리촌명(22), 제언보명(4), 주막명(3), 암치현명(2), 城堡名(1) (총 39개)
俗離面 (12개)	산곡명(14), 야평명(2), 면사방명(1), 동리촌명(27), 寺刹名(8), 제언보명(7), 古蹟名所名(4), 강천계간명(5), 암치현명(4), 院名(1), 주막명(10), 土産名(1) (총 84개)
旺來面 (8개)	산곡명(3), 야평명(3), 면사방명(1), 동리촌명(10), 시장명(1), 주막명(2), 제언보명(3), 암치현명(1) (총 24개)
馬老面 (9개)	산곡명(9), 야평명(9), 동리촌명(13), 시장명(1), 제언보명(1), 강천계간명(2), 암치현명(4), 주막명(6), 면사방명(1) (총 46개)
炭釜面 (8개)	산곡명(4), 야평명(2), 강천계간명(2), 면사방명(1), 동리촌명(18), 주막명(3), 제언보명(1), 암치현명(2) (총 33개)
三升面 (11개)	산곡명(2), 야평명(4), 강천계간명(2), 면사방명(1), 동리촌명(22), 역명(1), 원명(1), 시장명(1), 주막명(4), 제언보명(4), 古碑名(1) (총 43개)
西尼面 (9개)	산곡명(17), 야평명(13), 강천계간명(1), 면사방명(1), 동리촌명(20), 주막명(3), 제언보명(1), 암치현명(6), 사찰명(1) (총 63개)
水汗面 (8개)	산곡명(25), 강천계간명(5), 동리촌명(27), 주막명(11), 제언보명(1), 암치현명(7), 야평명(3), 면사방명(1) (총 80개)
內北面 (9개)	산곡명(1), 야평명(1), 강천계간명(1), 면사방명(1), 동리촌명(30), 주막명(4), 제언보명(1), 암치현명(4), 성보명(1) (총 44개)
朱城面 (8개)	산곡명(19), 야평명(14), 강천계간명(1), 동리촌명(19), 주막명(4), 제언보명(1), 암치현명(4), 면사방명(1) (총 63개)
山外面 (7개)	산곡명(10), 야평명(4), 면사방명(1), 동리촌명(20), 주막명(6), 제언보명(3), 암치현명(4) (총 48개)



청풍면이, 단양군 자료에는 영춘면이 포함되어 있다. 청풍군과 영춘군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이르러서야 각각 제천군과 단양군에 병합되었다. 1911년 당시 청풍군과 영춘군이 존치했던 사실은 조선총독부의 여러 관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0387호(발행일자: 1911.12.11.) 고시명 ‘청풍군우체소등폐지(淸風郵遞所等廢止)’에는 청풍 우편소가 “충청북도 청풍군 읍내면 중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관보 제466호(발행일자: 1912.03.19) 고시명 ‘영춘공립보통학교 설치인가(永春公立普通學校設置認可)’에는 문의군, 청산군, 회인군, 연풍군, 청풍군의 존속 사실과 함께 영춘 공립 보통학교를 “충청북도 영춘군 군내면 상리”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 1911년 당시 청풍군과 영춘군이 제천군과 단양군에 통폐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4책의 제천군과 단양군에 각각 수록된 청풍군 소속의 청풍면, 금성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수하면과 영춘군 소속의 영춘면, 어상천면, 가곡면 자료들이 어떻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명칭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충북편의 분책 사항에 이어 각군의 면별로 수록된 구체적인 조사 항목, 즉 종별을 보은군을 사례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보은군에는 총 13개면에 총 634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면별로 조사항목, 즉 종별의 수가 7개에서 12개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속리면은 12개의 조사 항목에 총 84개의 지명이 실려 있으며, 다른 면과 비교하여 사찰명, 고적명, 토산명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보은군의 조사 항목을 청주군과 비교해 보면, 수록된 면의 수는 청주군의 18개면보다 적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조사항목(종별)의 명칭에 있어서는 보은군에 ‘동리촌명’으로 기록된 종별 명칭이 청주군의 기록에는 ‘동리명(洞里名)’과 ‘부락부곡명(部落部曲名)’으로, 산곡명은 ‘산악명(山岳名)’, ‘계곡명(谿谷名)’으로, 강천계간명은 ‘하천명(河川名)’으로, 성보명이 ‘성지명(城址名)’으로, 원명이 ‘서원명(書院名)’으로, 야평명이 ‘원평명(原坪名)’으로 달리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청주군 지명 자료에는 보

은군의 종별에 없는 ‘정명(亭名)’, ‘묘명(廟名)’, ‘지소명(池沼名)’, ‘도진명(渡津名)’, ‘면사무소(面事務所)’, ‘학교(學校)’, ‘주재소(駐在所)’ 등이 면별로 편차를 보이며 수록되어 있으며, 보은군의 ‘면사방명’은 청주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별 명칭이다. 특히 조선시대 ‘면(面)’과 동급의 행정구역으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분포했던 ‘방(坊)’과 ‘사(社)’가 기록되어 있어 이채롭다.

수집된 지명의 종류와 이를 표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보은군의 총 634개 지명 중 ① 한자와 한글(언문)이 모두 표기된 지명이 530개(8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은군의 지명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한자만 표기된 지명의 수는 104개(16%)이며, ③ 한글(언문)만 표기된 지명은 하나도 없었다. 경기도 광주군(廣州郡)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총 877개 지명 중 ① 한자와 한글이 모두 표기된 지명이 189개(21%), ② 한자만 표기된 것이 673개(77%), ③ 한글만 표기된 지명이 15개(2%)로 나타나고 있어, 보은군에 수록된 한글 형태의 고유 지명이 광주군보다 풍부함을 알 수 있다(이건식, 2009, 218-219). 특히 한자와 한글이 대응 표기되어 지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명 표기가 15세기의 『용비어천가』에는 173개, 18세기의 『이재난고』에 413개 수록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조선지리지자료』의 지명학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4. 『조선지리지자료』의 지명학적 가치

54책 분량의 『조선지리지자료』는 각 책마다 적게는 200여 면에서 많게는 500여 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현재 54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연구보다는 시도 및 시군 단위로 해당 지역의 지리지 구축과 문화, 역사, 지리를 복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등 지역별로 산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임용기, 1995; 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한정규 편, 2002; 신종원 편, 2007; 박채은 편, 2007; 신종원 등, 201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20세기 초반 언문으로 기록된 고유 지명이 대응되는 한자 지명과 함께 다량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4. 시대 문헌별 보은군 수한면 수록 동리촌명의 표기 변화

	『戶口』(1789) 水汗面(27개)	『朝鮮』(1911 ?) 水汗面(27개)	『地方』(1912) 水汗面(29개)	『新舊』(1917) 水汗面(14개)	비고	
보은군 수한면 (水汗面)		云川里 (계룡쇼)	雲川里		云>雲	
		瓦治里 (왜쇼)	瓦治里			
	後坪里	後坪里 (뒤들)	後坪里	後坪里 (+瓦治里+云川里)		
		教岩里 (가리친바우)	教岩里	▲教岩里 (+巨墨洞)	▲면소재지	
	巨墨洞里	巨墨洞 (거먹골)	巨墨里		洞>里	
	并院里	并院里 (가리원)	竝院里	並院里	并>竝>並	
	隱路里	隱路里 (반복)	隱路里			
		山尺洞 (산자골)	山尺洞	山尺里 (+隱路里+회인군 山尺里)	洞>里	
	坪浦里	坪浦洞 (들푸골)	坪浦里			
		桐丁里	桐亭里	桐井里 (+坪浦里+회인군 車嶺里)	丁>亭>井	
	梧亭里	梧丁里	梧亭里	梧亭里	亭>丁>亭	
		弓基洞 (궁터골)			洞>里	
	長善里	長善里	長善里	長善里 (+弓基里)		
	新基里	秩新里 (질고지식터)	秩新里	秩新里 (+秩串里)		
	秋串里	秩串里 (질고지)	秩串里		秋>秩	
	陽基洞里	良基洞 (양터골)	良基里		陽>良, 洞>里	
	文峙里	文峙里	文峙里			
		巨新里 (거리고지식터)	巨新里			
	巨峴, 巨峴里	巨峴里 (거리고기)	巨峴里	巨峴里 (+巨新里+文峙里)		
	中里	中里 (모정)	中里			
	畝洞里		畝西洞 (회승골)	畝西里	畝西里 (+畝東里+中里)	
			畝東洞 (묘골)	畝東里		
			畝北里 (가막지)	畝北里		
			末串里 (말꼬지)	末串里		
		菴溪里 (쇼메이)	菴(菴)溪里	菴(菴)溪里 (+末串里+畝北里)	菴>菴>菴	
	星里	星里 (별리)	星里	星里		
	鉢山里	鉢山里 (마리미)	鉢山里	鉢山里 (+云川里)		
	馬門里		馬門里			
於里光里		光村里	光村里 (+良基里)			
汗坪里						
牛項里		牛項里				
木串里						
槐亭里						
仁坪里						
長承里						
新农村						
水邊里						

주1: 상단의 약자는 각각 『戶口』=『호구총수』(1789년), 『朝鮮』=『조선지리지자료』(1911년경), 『地方』=『지방행정지구명칭일람』(1912년), 『新舊』=『신구대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년)을 뜻함.

주2: 비교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표 5. 『조선지리지』 충북편 수록 보은군 고유 지명의 차자 표기 경향

고유 지명	위치(종별)	음차 표기	훈음차 표기	훈차 표기	비고
가자골	읍내면(산곡명)	佳子谷		佳子谷	특정 장소의 가장자리에 위치(加左洞)
장꿈이들	읍내면(야평명)	長夢坪	長夢坪	長夢坪	
빅들	읍내면(동리촌명)		梨坪里	梨坪里	
바람부리	산내면(동리촌명)			風吹里	
소라이	산내면(동리촌명)		磬足里		
누밧	산내면(동리촌명)	樓底里		樓底里	
달안이	산내면(동리촌명)	月岸里	月岸里		
밤까울	산내면(동리촌명)		栗枝里	栗枝里	
무쇠목고기	산내면(중곡리)(암치현명)			水鐵嶺	동일 지명이 지역에 따라 달리 표기됨
무슈목지	속리면 북암리(암치현명)	舞袖嶺		舞袖嶺	
미봉지	수한면(산곡명)		鷹峯	鷹峯	매 = 山
동막골	수한면(산곡명)	東幕谷		東幕谷	
베락정어	수한면(산곡명)	霹靂谷			영동군에 동일한 지명이 있음
각씨쇼	수한면(강천계간명)	娘子沼		娘子沼	한역 표기
가리원	수한면(동리촌명)	并院里	并院里		
뜰푸골	수한면(동리촌명)	坪浦洞	坪浦洞	坪浦洞	
말소지	수한면(동리촌명)	末申里			
뒤들	수한면(야평명)			後坪	
구리목이	내북면(동리촌명)	九二目里			
잔피	내북면(동리촌명)			山城里	표기자 도치
짜피성	내북면 산성리(성보명)		栢峰山城	栢峰山城	갓 = 城
까치목고기	내북면(암치현명)		鶻頂峙	鶻頂峙	
불목골	주성면(산곡명)	火木山	火木山		
논건너산	주성면(산곡명)			畚越山	
꽃다리골	주성면(산곡명)		花煎谷	花煎谷	
비어지	주성면(암치현명)		星峙	星峙	
더고리	산외면(동리촌명)	加古里	加古里		
돌소지	탄부면(동리촌명)		石花里	石花里	
츄돌빅이	탄부면(암치현명)			白石峙	한역 표기
온비미	삼승면(동리촌명)	溫夜里	溫夜里		
쇠푼이	서니면(동리촌명)		金堀里	金堀里	
갓밭고기	서니면(암치현명)		栢田峴	栢田峴	갓 = 城 또는 栢

주: 받쳐적기법(훈주음종법) 사례: **솔음**리(언문: 말름골)[懷仁郡 江外面 洞里村名], **황음**리(언문: 누름실)[靑山郡 西面 里洞名], **風雲**곡(언문: 말음이골)[淸山郡 北面 山谷名], **遂意**實谷(언문: 트리실골)[陰城郡 陰城面 谿谷명], **鉢**里峴(언문: 바리고기)[음성군 金旺面 山岳名].

이 책에 수록된 한자 지명과 한글 지명의 대응 자료는 국어학계의 20세기 초반 표기법 특성과 차차표기의 변천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었고(이건식, 2009; 심보경, 2010), 역사학과와 지리학계에서는 조사 항목에 기재된 인공 시설물과 토산물 등의 종류와 분포, 변화 등을 추적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분석하고, 나아가 지명의 위치 고증과 지명 의미의 재구, 지명 변천의 과정을 매개하는 단서로 활용해 왔다(정수환, 2009; 김순배, 2009). 실제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일 지역에 분포하는 시대별 지명 자료의 배열을 통해 지명의 위치 고증 및 변천 과정, 지명의 의미와 명명 유연성 추적, 그리고 차차표기법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조선지리지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은군 수한면에 수록된 촌락 지명들을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와 1911년 경의 『조선지리지자료』, 1912년의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7년의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서 찾아 정리하면 시대별로 수한면에 분포한 촌락 지명의 증감과 촌락 분동 상황, 표기자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지리지자료』에는 다른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자 지명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가 수록되어 있어 지명의 의미와 차차표기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표 5>는 『조선지리지자료』 충북편에 수록된 보은군 고유 지명의 차차 표기 경향을 음차 표기(音借表記), 훈음차(訓音借) 표기, 훈차(訓借) 표기, 받쳐적기법(훈주음중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sup>5)</sup> 한글로 표기된 고유 지명에 대한 차차 표기는 하나의 고유 지명에 여러 차차 표기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은군 읍내면 야평명인 ‘장꿈이들’은 ‘長夢坪’이란 한자 지명과 대응된다. 이때 ‘장’은 ‘長’으로 음차 표기된 것이며, ‘꿈(꿈)’은 실제 사람이 꾸는 ‘꿈’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夢’의 훈음(訓音)인 ‘꿈’만을 빌어 표기한 훈음차 표기이다. 또한 ‘들’은 ‘坪’으로 훈차 표기된 것이다.

<표 5>에서 동일한 표기자가 훈음차 표기와 훈차 표기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고유 지명의 표기자가 실제 어떤 의미를 뜻하는 가

를 예단할 수 없어 두 차차 표기에 모두 포함시킨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봉지(매봉재)’을 차차 표기한 ‘鷹峯’의 ‘鷹’은 고유 지명의 ‘미(매)’가 조류의 한 종류인 ‘매(鷹)’를 표기한 것인지(훈차 표기), 혹은 산을 뜻하는 고유어인 ‘메-피(山)’을 의미하는 것인지(훈음차 표기) 확정할 수 없어 두 차차 표기 모두에 포함시켰다.

<표 5> 하단의 주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선지리지자료』 충북편에서 발견되는 받쳐적기법 사례는 총 5개로 매우 드물다. 그 중 ‘말름골’(충북 회인군 강외면 동리촌명)의 ‘말름’을 받쳐 적기한 ‘솨音’은 ‘솨’의 훈음인 ‘마름’의 말음절, 즉 ‘름’을 ‘音’으로 받쳐 적은 사례이다. 이것은 곧 ‘솨音’을 ‘사음’으로 발음하지 말고 ‘말음’으로 말하라는 차차 표기 방식이다. 이러한 받쳐적기법은 19세기 말까지 존속한 차차표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박성중, 1996, 7; 김순배, 2004, 113-114), 이 책에서 나타난 5건의 사례를 통해 받쳐적기법의 차차 표기 전통이 20세기 초반까지 명맥이 이어져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지리지자료』의 학술적 가치는 국어학, 역사학, 지리학계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 수록된 한글 형태의 고유 지명은 지명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먼 지명 및 촌락 지명과 같은 소지명들이 우리나라 문헌에 대량으로 등재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 경의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비롯되고 있어 등재된 시기가 이르지 못하다. 더욱이 한글 지명이 전국 단위로 풍부하게 등재된 문헌은 이 『조선지리지자료』가 처음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서 본격화된 한글 지명을 한자 지명과 대응하여 표기하는 전통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글학회에 의해 수행되었던 『한국지명총람』의 간행으로 이어져 급속히 소멸해가고 있는 소지명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어 주고 있다.

## 5. 결론

우리나라 지명은 고유한 표기 문자의 부재, 한글과 한자 사용이라는 언어생활의 이중성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표기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로 인해 지명의 본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리적 실체를 지칭하는 한글 지명과 이에 대응하는 한자 지명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까지도 순우리말의 고유 지명은 대부분 음성 상태로만 구전되어 오거나 그 일부만이 차자 표기되어 한자 지명과 공존해 왔다. 대부분의 지명 자료가 한자로만 기록되어 있어 순우리말의 고유 지명이 한자로 차자 표기되면서 어떻게 지명 형태소와 의미의 변화를 낳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1911년 경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의 발굴로 인해 한자 지명과 대응되는 한글 지명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지명 변천의 언어학적인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학적인 명명 유연성과 행정 구역 변천을 추론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얻게 되었다. 이 문헌이 지니는 가장 큰 학술적 가치로 평가되는 한글로 표기된 고유 지명과 그와 대응되는 한자 지명의 다량 수록, 그리고 지방의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수록 지명들은 앞으로 순수한 지명 연구와 함께 1세기 전 구한말의 지방 행정과 해당 지역의 지리, 언어, 문화, 역사, 민속 등을 분석하는 지역지리와 지방사 분야의 후속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진행된 본 논문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조선지리지자료』의 서지 사항과 내용 구성을 충청북도편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편찬 시기와 내용 구성의 지역적 편차와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고, 지명 자료의 지명학적 가치를 촌락 지명의 표기 변화와 차자 표기 경향을 분석하여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지리지자료』는 선행 연구들에서 1911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충북편의 일부 자료에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결과로 보이는 면 지명들이 발견되고 있다. 즉 충북편 4책에는 청풍군과 영춘군이 빠져 있고, 대신 제천군과 단양군에 각각 이들 군의 소속 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3책의 괴산군 ‘괴산면’과 4책의 음성군 ‘음성면’이란 지명들

은 1917년 시행된 기존 군 지명을 활용한 면 지명의 개정 결과를 담고 있다. 한편 면의 통폐합 결과 나타난 합성 지명들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조선지리지자료』 충북편에는 1914년 통폐합 이후에나 등장하는 ‘금왕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4책에는 제천, 음성, 단양의 3개 군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제천군 자료에는 청풍면이, 단양군 자료에는 영춘면이 포함되어 있다. 청풍군과 영춘군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이르러서야 각각 제천군과 단양군에 병합되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조선지리지자료』가 1911년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14년과 1917년의 지명 개편 결과를 담고 있는 충북편의 기록으로 인해 이 문헌이 시기를 달리하여 지역별로 편찬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1911년에 편찬된 후 추후의 지명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재편집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각 책별 내용 구성이 이 문헌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정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忠淸北道 —’은 영동, 진천, 단양, 황간 등 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단양군의 남면, 서면, 조산면, 소야면, 북일면 자료는 2책의 연풍군 자료에 중복되어 기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2책의 목차 중 연풍군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그 자리에 단양군의 상기 5개 면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충북은 18개 군이 있었으므로, 충북편의 분책 사항을 17개 군에서 18개 군으로 조정하여 각각 제천군과 단양군에 포함되어 있는 청풍군과 영춘군 자료를 독립시키고, 누락된 연풍군 자료를 찾아 보완해야 하며, 2책 연풍군에 포함된 5개의 단양군 면 자료를 1책의 단양군 항목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셋째, 『조선지리지자료』는 동일 지역에 분포하는 시대별 지명 자료의 배열을 통해 지명의 위치 고증 및 변천 과정, 지명의 의미, 그리고 차자표기법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사례 연구로 살펴본 충북 보은군 수한면의 지명 자료를 통해 촌락 지명의 증감과 촌락 분동 상

황, 표기자의 변화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선지리지』에는 다른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자 지명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가 수록되어 있어 지명의 의미와 차자표기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 사례로 충북편에 수록된 보은군 고유 지명의 차자 표기 경향을 음차 표기, 훈음차 표기, 훈차 표기, 받쳐적기법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 중 받쳐적기법은 19세기 말까지 존속한 차자표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북편에서 나타난 5건의 사례를 통해 받쳐적기법의 차자 표기 전통이 20세기 초반까지 명맥이 이어져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지리지』의 학술적 가치는 앞으로 관련 학계의 전문적인 분석과 이를 종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조선지리지』의 충북편을 시론적으로 분석한 본 논문 또한 이 문헌에 수록된 일부 지명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 지명 유형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평안남북도 등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서지 사항조차 연구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선지리지』에 대한 지리학계의 전문적인 지명 연구와 지역 연구가 촉발되길 기대한다.

## 주

- 1) 1917년(대정 6) 지정면제의 실시로 군청 소재지의 면 명칭이 군내면, 현내면, 읍내면 등에서 해당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를 따서 괴산군 ‘괴산면’, 음성군 ‘음성면’ 등으로 개정되었다[「면동리명칭변경서류(面洞里名稱變更書類)(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건-충청북도; 면의 명칭 변경의 건-충청북도), 조선총독부(1917),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소장, 관리번호(CJA0002573)].
- 2) 지난 2012년 6월 청원군민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새로운 도농통합시의 명칭은 ‘청주시’로 확정되었으며, 오는 2014년 7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청원군’은 1946년 6월 청주읍의 청주부 승격,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한 청주부의 청주시로의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분리, 청주군의 청원군으로의 개칭으로 처음 명명되었다(청원군문화원, 1997, 9).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 약 65년간의 지명 존속을 끝으로 ‘청원군’이란 지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 3) 예를 들어, 4책에 수록된 음성군의 일부 면 지명들

중 원남면은 원서면과 남면이 통합된 것이고, 대소면은 대조면, 소탄면, 사다면이, 금왕면은 금목면과 법왕면이, 생극면은 생동면과 무극면이, 감곡면은 감미면과 거곡면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합성 지명들임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과 비교하여 확인해 낼 수 있다.

- 4) 1912년에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연풍군(5면 51동리) 소속 면으로 ‘현내면(縣內面)’, ‘장풍면(長豊面)’, ‘면의면(勉僣面)’, ‘고사리면(古沙里面)’, ‘수회면(水回面)’의 5개 면이 기록되어 있다. 본래 이들 5개 면 자료가 이곳에 등재되어 있어야 옳다.
- 5) 우리말의 고유 명사에 대한 차자 표기법에는 네 가지의 기본법이 있다(도수희, 1999, 72-73; 김순배, 2009, 22). ① 음차법: 고유 명사를 유사한 한자음으로 음차 표기하는 방법(多樂洞: 다락굴), ② 훈차법: 고유 명사를 한자의 훈(새김)을 빌어 적는 방법(直洞: 고든골), ③ 훈음차법: 한자의 본뜻은 버리고 훈의 음만 빌어 적는 방법(花田: 꽃밭), ④ 음·훈 병차법: 음·훈을 아울러 쓰는 혼합 표기 방법(五丘山: 오구미). 이와는 달리 음가자(音假字), 음독자(音讀字), 훈가자(訓假字), 훈독자(訓讀字)로 차자표기법을 구분한 연구(남풍현, 1981)가 있으며, 필자는 이를 각각 음소리 표기, 음뜻 표기, 훈소리 표기, 훈뜻 표기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외에 ‘받쳐적기법’, 즉 ‘훈+음’의 순서로 표기하는 방법이 보편적인데 그 첫째 자는 뜻을 나타내며 둘째 자는 음을 나타내어 발음하면 첫째 자의 훈독음(訓讀音)이 실현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즉 첫째 자의 훈독어형(고유어형)의 말음절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赫居(혁거)’, ‘世里(세리)’ 등에서 ‘居(거)’, ‘里(리)’가 그것이다. 이 받쳐적기법은 ‘혁거’, ‘세리’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로 끝음절을 받쳐 적어 ‘불거’, ‘누리’와 같이 바르게 발음하도록 유도한 차자 표기 방법이다.

## 문헌

- 강신항·이종목·권오영·정만조·이현창·정성희·강관식, 2007,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 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화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학교.
- 김순배, 2004, 지명 변천의 지역적 요인: 16세기 이후 대전 지방의 한자 지명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3), 65-85.
- 김순배, 2009, 韓國 地名의 文化政治的 變遷에 關한 研究: 舊 公州牧 鎭管 區域을 中心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배, 2012,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

- 적 변천, 경인문화사.
- 남풍현, 1981, 차자 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도수희, 1999, 한국 지명 연구, 이회.
- 박성중, 1996, 조선 초기 이두 자료와 그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채은 편, 2007,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속 울산의 옛 땅이름, 울산남구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 신종원·정치영·허원영·이건식·장장식·김홍삼·정수환, 2010,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경기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 신종원 편, 2007,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朝鮮地誌資料》 江原道篇, 경인문화사.
- 심보경, 2010,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의 국어학적 연구: 강원도 편 39-42권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4, 75-101.
- 이건식, 2009, 『조선지리지자료』 경기도 광주군 수록 지명 표기의 분석적 연구: 한자 지명 표기의 재해석 현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7, 213-256.
- 이래호, 2012, 연간에 나타난 지명: 지명의 인물 지칭과 한정 양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지명학회-어문생활사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발표문, 151-167.
- 임용기, 1995, 《조선지리지자료》와 부평의 지명, 기전문화연구, 24, 141-210.
- 정수환, 2009, 『조선지리지자료』에 나타난 경기도 수리시설의 현황과 특징: 보와 제언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39, 135-175.
- 조규태, 2010, 용비어천가, 한국문화사.
- 청원군지편찬위원회, 2006, 청원군지, 청원군.
- 청원문화원, 1997, 청원군 지명지, 청원문화원.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학술연구보고서 2: 조선지리지자료 충청북도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한정규 편, 2002,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 戶口總數, 서울대학교출판부 영인본(1996).
- 朝鮮地誌資料, 조선총독부(1911?).
-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1912).
-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越智唯七(1917).
- 面洞里名稱變更書類, 조선총독부(1917).
- 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1910~1945).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시스템: <http://www.atlaskorea.org>.

(접수: 2013.01.14, 수정: 2013.02.23, 채택: 2013.02.26)